

# 판로 걱정 없는 농산물 유통

# 탄소중립영농실천! NO 플라스틱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설 연휴 '공원묘지' 전면 폐쇄

익산시가 설 연휴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팔봉 공원묘지를 전면 폐쇄한다.

시는 팔봉 공원묘지 전체 시설을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면 폐쇄하고 폐쇄기간 전후로 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28일, 2월 3~4일에 현장 접수와 사전예약제(063-859-3847, 3828)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 입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팀(가족당 6명 이내)에 이용 시간도 20분까지만 허용하며 차례실·휴게실 이용은 금지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묘지 등 3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성묘 시스템(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익산=이득훈기자

#### 군산시,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

군산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 제공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 유휴재산을 활용해 대부·매입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공개 토지는 일반재산 903필지 221천㎡로 분기별로 업그레이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와 현재 대부유무 및 대부·매각 절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공개입찰은 온비드에서 이뤄지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기자

## 익산시, 푸드플랜·통합마케팅·마을전자상거래 등 공격적 판로 확대 추진

익산시가 지역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시는 영세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300여억원의 농산물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12% 증가된 수치로 4개 분야, 48개 사업에 278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분야별로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익산 쌀 소비 촉진, 마을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먹거리 안전성 제고와 지역 내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27개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총괄한 푸드통합지원센터 APC 시설건립이 4월에 착공된다. 이어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 체계로 단계



를 강화한다.

익산 탐마루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 등에 28억원을 투자해 쌀 판로 해소를 위한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맞춤형 익산 쌀 2만4,000톤 공급 확정으로 올 3월부터 2천여 명의 농가가 참여하는 3,100ha 규모의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대기업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CI(씨제이), (주)하림, 분아이라프 등에 고품질 원료곡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활력 가득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에 9억원이 투자된다.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산물 판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익산물) 리뉴얼·택배박스 디자인 개선·택배비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해 다양한 개편을 시도한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뒷밭에서 소비하는 식탁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살펴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며 판로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 탄소중립 선도도시 향한 2023년 국가예산 사업 총력

### 군산시,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집중 계획... 현재까지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발굴

군산시는 국가예산 1조 1천억 대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의 경제 위기 해소와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각 정부부처는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과 관련사업 발굴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시도 올해 시정방향인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지침도시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 내실화와 가속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권

설팅 11월 국가예산 및 국·도비 확보 전문가 특강 전직원 아이디어 회의 등을 실시해 예산확보 대응전략 마련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국가예산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가사업 32건, 신규사업 70건을 발굴·검토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사업으로는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3,747억 원), ▲군산항 제2순설도 투기장 건설(3,700억 원), ▲무탄소 적용가능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165억 원),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61억 원), ▲RE:WATER 사업(=산업단지 공업용수 재활용 사업, 군산시 시범사업)(1,234억 원) 등이다.

오는 3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신산업 관련 정책기조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각 부서 및 전문기법과 적극 공유하고, 시민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의미있는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군산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통해 시민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은 3~4월 중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및 부처간도약이 통보되며, 5월말 각 소관 부처인이 편성·확정되면 기재부로 제출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농업기술센터,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농촌 지키기 결의

군산농업기술센터는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리영신)와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농촌을 지키기'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영농실천과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업·농촌분야 탄소중립 실천결의를 다지는 선선와 함께 폐비닐 등 영농폐자재 수거 확대, 영농부산물 안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NO플라스틱 실천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택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결의대회에서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3개단체,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읍면동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순회교육을 통해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에 동참하기 위한 교육과 수세미 종자를 12개 읍면동 생활개선위원회에 나눠 직접 배배해 만든 전

연수세미를 군산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자재 수거사업을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소하천 살리기 EM 방류행사와 친환경제제만들기 실습과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화에도 노력해왔다.

리영신 생활개선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생활개선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실천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농업분야 비경간 물떼기, 질소비료 적량 사용하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중립 영농활동이 전 농업인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지위를 대폭 확대한다.

19일 시는 올해부터 전액 시비를 투입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시비 18억600만원이 투입되며 노인 의료복지시설 51개소 재가장기요양기

관 176개소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7,525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2월부터 매달 활동비 지원이 시작되며 1월분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번 활동비 지원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